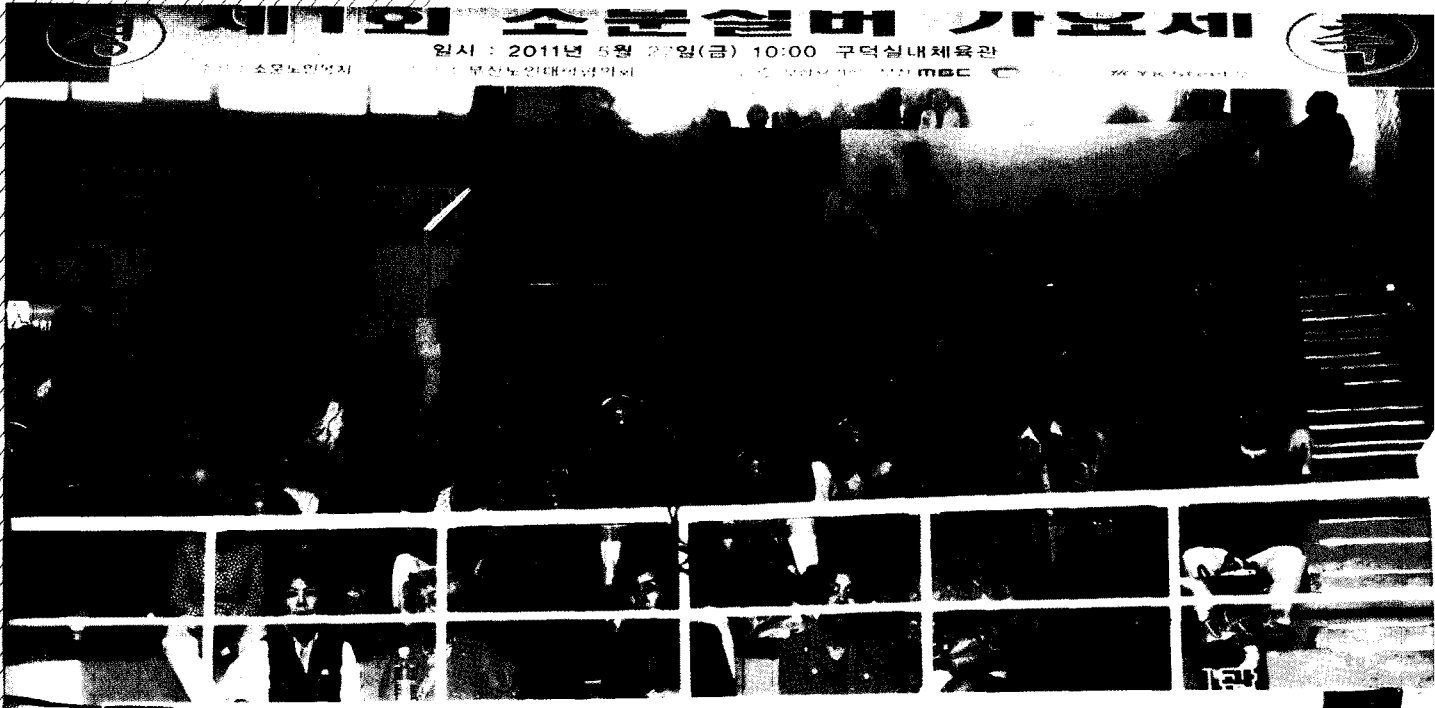


‘노인복지에 헌신’

조병섭 회장, 제1회 소문실버가요축제 개최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소문노인대학

사단법인 소문노인복지 051)243-3017

사단법인 소문노인복지(이사장 조병섭, 소문출판인쇄사 회장)가 지난 5월 27일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부산소재 노인대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문실버가요축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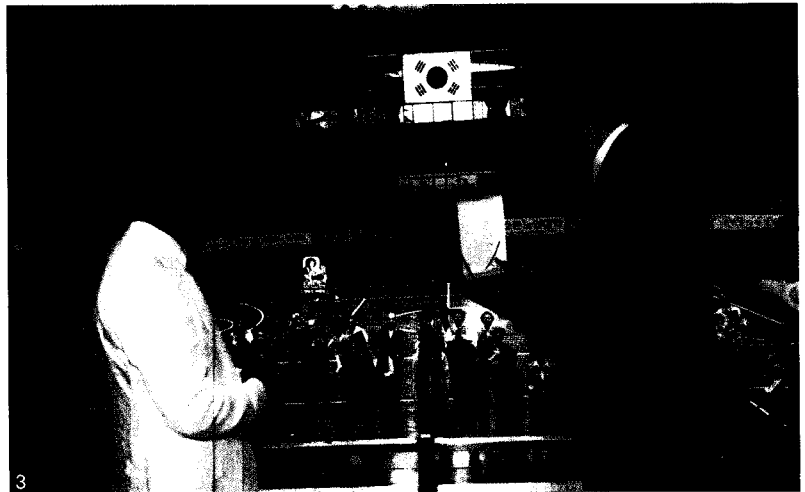
이번 가요제를 주최한 사단법인 소문노인복지는 노인복지에 열정을 쏟는 인쇄인으로 잘 알려진 조병섭 부산 소문출판인쇄사 회장이 설립한 복지시설이다.

조병섭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제1회 소문실버가요축제에서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목청껏 크게 불러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손뼉 치며 따라 노래 부르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조병섭 이사장님은 지역 중소기업인으로 일평생을 근면과 성실을 신조로 살아오셨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 오셨다. 오늘 이렇게 뜻 깊은 행사까지 개최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 사단법인 소문노인복지회는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부산소재 노인대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문실버가요축제를 개최했다.
2. 제1회 소문실버가요축제 행사 책자
3. 2부 초청공연을 진행한 가수 송대관씨에게 조병섭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성정옥 국악단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경로현장 낭독, 노인 강령 낭독, 축하 및 격려사, 1부 노인대학 예능발표, 2부 국민 가수 송대관씨의 초청공연과 함께 노인대학 별 실버가요축제로 진행됐다.

1부 노인대학 예능발표는 노인대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고 민요합창, 기공체조, 합창(구구팔팔인생), 고전무용, 우리 춤 체조, 국악, 건강체조, 합창, 궁중무용, 포크댄스,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장구가요, 수건체조, 창부터령, 생활체조 등 다양한 분야를 발표했다. 1부 행사에는 조은노인대학, 향도노년 평생대학, 한얼노인대학 등 23개 노인대학에서 627명의 노인대학 학생들이 참가해 숨씨를 뽐냈다.

2부 실버가요축제에는 울산중앙방송 전문 MC인 노민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부 시작과 함께 국민가수인 송대관씨가 ‘짹하고 해 뜬 날’ 등 자신의 히트곡 5곡을 불러 분위기를 띄웠다.

한층 고무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실버가요 축제는 총 31개 팀이 참가했는데, 노명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부산지회 가수분과위원장과 박정화 가수 분과위원의 심사 대상에는 ‘삼각관계’를 부른 늘푸른문화원의 김진영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추억의 소야곡’을 부른 박태관(봉생실버대학), ‘청춘고백’을 부른 허형도(청춘스포츠문화원)가, 장려상에는 ‘시계바늘’을 부른 오천덕씨, ‘내 사랑아’를 부른 최종숙(비둘기노인대학)씨가, 인기상에는 ‘님과 함께’를 부른 이인역(덕성노인대학), ‘모르나봐’를 부른 김채식(한얼노인대학)씨가 수상했다. Ⓞ

조병섭 회장이 설립한 소문노인복지회는

조병섭 회장은 지난 1959년 소문출판인쇄사를 창립, 부산시인쇄조합 이사장직을 15년 동안 역임했다.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조병섭 회장은 기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하고, 대지 660㎡(200여 평)에 노인대학을 설립한 후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국가에 기증했다. 2000년 문을 연 소문노인대학은 인근지역의 여러 노인대학 가운데 제일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330㎡(100여평)의 3층 건물을 신축해 노인교실, 의료보건 시설, 노인문제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소문노인대학은 2007년 사단법인 소문노인복지로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컴퓨터 시설 및 학습교재 완비, 우수한 강사진 초빙, 현대적 취사시설, 연 2회 고적 탐방 등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병섭 회장은 인쇄문화 발전 공로로 문화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꽃이지면
앞이 보이듯이

